47 大韓地誌(一·二)

(대한지지)

대한지지는 1906년(광무3)에 一편을 1913년(광무10)에 二부를 발간했는데 구한국 정부의 학부(學部)에서 편찬 간행했다

一편은 132쪽으로 총론과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및 경북이 수록되어 있다

二편은 106쪽인데 경남. 황해. 평남

경북、강원. 충남 및 충북도가 수록 되어 있다

전말 발문은 백암(白庵) 현채(玄采)와 강진희(姜璡熙) 선생이 썼다

각도(道) 마다 고을(郡)의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41개군(郡) 중 一등 군(郡)은 상주군(尙州)와 경주(慶州)군이고

二등군은 大丘郡. 星州郡. 義城郡. 永川郡 및 安東郡 이고

三등군은 醴泉郡 金泉郡. 善山郡 및

淸道郡이고

四吉之云　靑松郡　仁同郡　寧海郡

順興郡　漆谷郡　豐基郡이오

德郡　龍宮郡　河陽郡　榮州郡

奉化郡　淸河郡　長鬐郡

軍威郡　義興郡　新寧郡

迎日郡　禮安郡　開寧郡

聞慶郡　知禮郡　咸昌郡

英陽郡　興海郡　慶山郡

慈仁郡　比安郡　玄風郡과　高靈郡이다

10×20

제일 앞에는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있고 각 도(道)라는 지도를 첨가하고 있다 그런데 1906년이면 이미 모든 분야에 일본의 손길이 영향을 미칠 때라 그러한지 책머리 첫줄에 東海(동해)를 日本海(일본해)라 한 것을 보니 편안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나 檀君(단군) 개국설을 싣고 있는 것을 보면 반다시 그렇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당시 一등군 二등군 하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추측컨데 인구 물산(物產) 및 인물 등이 그 잣대가 된것이 아닌가 싶다 일설에는 인구나 물산(경제) 보다도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고을이 등수가 높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경북도의 지도를 보면 울릉도는 그려져 있고 울릉도 주위에 여섯개의 섬이 그려져 있으나 독도라는 표기는 없다

경상남도 편을 보면 수부(首府)는 진주(晉州)이고 一등군은 진주군 만 하나이고 二등군이 김해(金海)군과 밀양(密陽)군이 두군데 밖에 없고 동래군이 三등군으로 분류 되어 있다

고성(固城) 남쪽에 통제대영(統制大營)이 있는데 이는 선조(宣祖)임금님이 오셔서 설치한 경상 전라 충청이 三道(삼도) 수군을 통솔케 하던 곳이라는 기록도 있단다